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k.net

주일오전설교

다섯 가지 명령

[딤후 6:11-12]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곧게 붙들라 (KJV, NASB, NIV).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그 곁에 두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그의 일에 쓰시는 자라는 뜻이라고 본다(신 33:1; 왕상 17:24; 왕하 4:7, 9, 25). 복음 사역자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신약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벧전 2:9).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우선 네 가지 명령을 하였다.

첫째로,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했다. ‘이것들’이란 경건과 지족함 대신에 돈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돈 사랑의 마음을 버려야 했다. 왜냐하면 돈 사랑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라고 말했다. 그는 범사에 의롭게 살아야 한다. 의는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는 또 경건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두려워하며 그를 섬기고 그에게 순종해야 하며 또 성경을 읽고 거기에 증거된 모든 진리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는 또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사랑은 믿음의 뿌리에서 나온 꽃이요 열매이다. 또 그는 오래 참고 온유해야 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다(고전 13:4). 이것들은 우리에게도 교훈이 된다.

셋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이며,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그는 자기 죄성과 세상의 악한 풍조와 사탄의 시험과 더불어 날마다 싸워야 한다. 의심과 불신앙은 큰 원수이다. 영적 싸움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며 그 길에는 때때로 실패와 낙심과 두려움과 회개의 눈물도 있으나 승리의 기쁨도 있다. 디모데뿐 아니라,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한다.

넷째로, “영생을 굳게 붙들라”고 말했다. 영생은 신앙생활의 목표이다. 로마서 6:22,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성도는 영생을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 영생의 소망은 복음 진리의 핵심적 내용이다(요 3:16; 딤후 1:1-3). 디모데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굳건한 믿음으로 영생을 굳게 붙들어 영생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13-14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들의 근원이요 생명 자체의 근원이다. 그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셨고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를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증거하셨다. 사도 바울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자신을 밝히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숙하게 명령하였다. 디모데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온전하게 이 네 가지 명령을 지켜야 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15-16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마지막 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성경에서 그의 재림은 그의 오심 혹은 그의 나타나심이라고 표현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세계

역사의 완성이 있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의인들과 악인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의 구원은 영광스런 구원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롬 8:18)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몇 가지 사실들을 증거하였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다. '능하신 자'라는 원어는 '주권자'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서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 그는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주권자이시다. 그는 실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

둘째로, 오직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는 존재 혹은 죽을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 자체이시다. 그는 누구에 의하여 생명을 얻으신 분이 아니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가 스스로 계심을 나타내는 명칭이다. 우주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 모든 생물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 그는 살아계시고 영원히 죽지 않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그것이 그의 거룩이며 그의 영광이다. 그는 이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과 질적으로 다르시다. 그는 이 피조 세계를 초월해 저 하늘 높이 빛 가운데 계시다. 그의 빛은 그의 완전성을 나타낸다. 이 세상은 유한(有限)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는 무한하시고 완전하시다. 그의 빛은 또한 그의 도덕성을 나타내신다. 그는 도덕적으로도 무한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시며 진실하신 하나님, 곧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시다. 사람은 그의 초월하시고 완전하신 영광 앞에 감히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 사람이 그의 영광을 보면 눈이 멀거나 죽을 것이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으신 자이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요 4:24). 이 세상에서 물질들은 대체로 볼 수 있다. 물론, 공기나 전기나 전파같이 볼 수 없는 것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영은 우리가 볼 수 없다. 그렇지만 영은 전기나 전파같이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다. 영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 영이시다. 그러나 그는 또한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영이시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요 영원한 생명(요 17:3)이다.

[17-18절]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살아계신(전통본문)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던 후한,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가지를 더 명했다(다섯째 명령). 그것은 부자들에게 명해야 할 교훈이다. 첫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은 재물이 많으면 마음이 높아지기 쉽다. 신명기 8:12-14, "네가 먹어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牛羊)이 번성하며 네 은금(銀金)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가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유익이 있고 부유함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유함을 구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잠 30:8).

둘째는 정함이 없는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다. 세상 재물은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잠언 23:5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히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말한다. 대형 화재나 붕괴 사고나 교통 사고를 당하거나 암이나 뇌졸중 같은 중병에 걸리는 경우, 짧은 기간에 수천만원, 수억원을 날릴 수 있다. 재물은 참으로 허무하고 불확실하다.

셋째는 오직 소망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모든 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다 포함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시 23:1).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다 시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것이 인생의 바른 길이다.

넷째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것이다. 선행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며(엡 2:10; 딤후 2:14) 구원 얻은 모든 성도에게 마땅한 일이다. 무엇이 선한 일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두 가지 선한 일은 전도와 구제의 일이다.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일, 즉 전도와 구제의 일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잠언 21:26은 의인은

아끼지 않고 구제한다고 말한다. 초대 예루살렘 교인 들처럼(행 2:45), 우리는 선한 일에 부유하고 서로 나눠주며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후하고 너그러워야 한다.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성도들의 선한 행실은 장래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과 같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자와 같아서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마 7:24-25). 반면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17, 26,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선행이 동반되면 그 진실함이 증거되며 확실한 미래가 보장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얻지만, 현실에서의 선한 행실들을 통해 그 구원이 확실해지는 것이다(벧후 1:10-11).

[20절]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사도 바울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그의 서신들 속에 기록된 교훈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보수 신앙이다. 보수 신앙이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옳은 길이며 바른 길이다.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보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심지어 교회 안에도, ‘거짓 되어 일컫는 지식’이 있다. 그것은 참된 지식이 아니다. 참 지식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죄를 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짓된 지식은 망령되고 헛된 말과 변론을 일으킨다. 우리는 그러한 말과 변론을 피해야 한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유익케 하는 바른 지식, 곧 성경적 교훈의 지식을 붙잡아야 한다.

[21절]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교회 안에는 잘못된 지식과 이단사설을 좇는 자들 즉 가라지들과 쭈정자들이 있다. 우리가 사탄의 존재와 활동을 생각하면, 그런 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 사탄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참된 믿음, 곧 성경적 믿음에서 이탈된 자들이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행하는 보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성도에게 합당치 않은 돈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또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을 버려야 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족하며 살아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그 대신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즉 성도다운 경건함과 지식과 도덕적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마귀의 시험과 장난들이 많은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한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저서 범죄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표요 우리의 소망인 영생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영원하신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 믿게 하셨고 우리 죄를 다 씻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영광스런 천국에서의 영생을 굳게 붙들어야 하고 다 받아 누려야 한다. 영생은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표요 복된 소망이다.

다섯째로, 부자들은 다음 몇 가지들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물질적 부요는 교만에 떨어지기 쉽다.

둘째, 정함 없는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되며 신앙생활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생명과 소망이시다.

셋째,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구원의 확실한 증표가 될 것이다.

주일오후설교 **번제단, 성막뜰, 등불**

[출 27:1-8]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 . .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조각목(췌탐 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라고 명하셨다. 번제단은 길이와 너비가 5규빗 즉 약 2.3미터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며, 높이는 3규빗 즉 약 1.4미터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어 붙이고 그 단을 놋청동으로 싸야 했다. 번제단은 놋단청동단이다. 뿔은 하나님께 두려움을 상징하는 것 같다. 또 재를 담은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읊기는 그릇을 놋청동으로 만들고, 또 놋청동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그물 네 모퉁이에 놋청동고리 넷을 만들어 그물을 단 사면 가

장자리 아래, 단 절반에 오르게 해야 했다.

[9-19절] 너는 성막의 띠를 만들지니 남을 . . .

하나님께서서는 또 **성막띠**를 만들라고 명하셨다. 성막띠는 남쪽과 북쪽에 동일하게 길이 100규빗, 즉 약 45미터의 세마포 천으로 만들되, 기둥이 20개(5규빗에 1개), 낫받침이 20개이며, 또 그 기둥 같고리와 끈을 은으로 만들어야 했다. 10절, 11절의 ‘가름대’는 ‘ 묶는 끈’을 가리킨다.

동쪽 즉 성막띠의 앞쪽도 너비가 50규빗, 즉 약 23미터이다. 가운데 20규빗 즉 약 9미터 너비의 출입문이 있고, 문 좌우로 15규빗 즉 약 6.8미터씩 천을 치되 각각 기둥 셋과 받침 셋이 있어야 했다. 출입문은 보라색 자주색 주홍색실과 기늘게 끈 베실로 수놓아 짠 천을 치고 기둥 넷과 받침 넷을 세워야 했다. 띠 사면 모든 기둥의 같고리와 끈은 은으로 만들고 받침은 놋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러면, 성막띠는 폭이 50규빗 즉 약 23미터, 길이가 100규빗 즉 약 45미터이며, 세마포 천의 높이는 5규빗 즉 약 2.3미터이다.

[20-21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 . .

이스라엘 자손들은 감람 열매들 즉 올리브 열매들로 쥘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야 했고 그들은 그것으로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야 했다.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준비하고 정돈하고 관리해야 했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이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번제단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번제단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준다. 그것은 우리에게 첫째,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과 둘째,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모든 사람에게는 제사장 즉 중보자가 필요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알려준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 제도는 이 사실을 계시하였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제사장이시며 중보자이신 이가 오셨다.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딤후 2:4; 히 4:14; 10:15). 또 모든 사람에게 제사가 필요했다. 제사의 근본적 의미는 속죄이다. 죄인은 속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한 영원한 속죄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히 10:12).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영원한 속죄제물로 드리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

는 것을 알고 속죄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한다.

둘째로, **성막띠도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성막띠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적 예배 장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시때때로 성막띠에 나아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다. 성막띠는 우리에게 공적 예배의 필요성을 교훈한다. 성막띠는 교회의 공적 집회 장소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적 경건 시간과 더불어 공예배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 모임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 신약 성도들이 공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은 구원 얻은 자들에게 유익하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42, 46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증거하였다(행 2:42, 46). 또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하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였다(히 10:24-25).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 곧 하나님의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히 받고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교훈대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우리는 일주일에 교회에 한두 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더 많은 시간 모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모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성경말씀을 읽고 배우고 복습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야 한다.

셋째로, **본장 마지막에 기록된 등불의 관리에 대한 명령도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막의 등불을 잘 준비하고 정돈하고 관리해야 했다. 등대와 그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 되심을 상징한다. 예수께서는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요 1:9). 그는 친히 자신을 증거하셨다(요 12:46). 또 성경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이시요 우리의 길에 빛이시다(시 119:105).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켜 것을 보았는데, 그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리켰다(계 4:5). 이처럼,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말씀과 성령을 상징하였다고 보인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구약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등불을 끊임없이 켜고 관리했듯이, 항상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성경말씀의 교훈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